

지역주민 우선 고용·이익 공유... '전남형 상생일자리' 뜬다

전남도,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450개 기업 유치·12만개 일자리 창출
한전 등 노사민정 37개 기관 상생협약 체결해 사업 속도... 정부도 주목

민선 7기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해 들어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상생협약안을 심의·의결하며,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에 한발 다가섰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등의 역할을 강조한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이익 공유라는 특징을 가진 '전남형 상생일자리'까지 선보이면서 광주·전남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첫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노사민정 37개 기관과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은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해 신안 해상 일원에 8.2GW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50여

의 기업 유치·육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설비 용량 8.2GW는 원자력발전소 8기 수준으로, 호남권 전체의 사용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민간자본 46조원 등 48조원을 투입해 그린뉴딜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 의장과 전남경영자총협회 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회장 등 노사민정을 대표한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노사민정 대표 위원들은 전남형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

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안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노사민정 37개 기관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할 4개 분야 30개 과제에 참여하게 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형 일자리사업 상생협약안 의결로 전남도는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에 한발 다가섰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생형 일자리를 지정하고 있다. 심사 전 선결 과제가 지역 경제주체 간 명확하게 역할을 규정할 상생협약 체결이다. 심사를 거쳐 전남형 일자리 사업이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될 경우, 참여 기업

과 근로자, 지역사회에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과 함께 전남도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의 성장동력으로 블루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고, 블루에너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출범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 어민 등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이익 공유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또 교회발 코로나 확산 ... "영업제한 앞서 종교시설 관리 강화를"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까지 검사
일부 집단 때문에 다수 피해 반복
방역수칙 준수 시민 불만 고조

모처럼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진정세를 보이던 광주에서 또 종교시설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검사행렬에 섰다. 100명이 넘는 교회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도 모두 검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휴일 이른 아침부터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검사를 받아야 했다.

〈관련기사 2·7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질만 하면 여지없이 터져나오는 종교시설발 집단감염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다수의 시민은 "일부 집단 때문에 다수의 피해가 반복되는 불공정한 현실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느냐"며 "광주시는 시민활동 제한이나 영업제한 등에 앞서 종교시설 등 집단발병 상습시설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6명(광주 1496~1501번)이 추가됐다. 3명은 광주 북구의 한 교회 관련이며, 나머지 3명은 각각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감염경로 미확인자, 해외 유입이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 23일 15명이 발생한 등 이날까지 이들 동안 18명으로 늘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 중 10명은 가족 관계이며 나머지는 이 교회 교인과 교회와 같은 건물에 있는 비인가 흡스쿨링 시설 학생들로 전해지고 있다. 이 교회는 3층 건물의 2층에 있으며 1층은 흡스쿨링



광주 북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18명이 쏟아져 나왔다. 24일 오전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 북구의 한 유치원에 차려진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링 시설, 3층은 주거 공간이 있다. 교인과 학생 대부분은 가족 관계로 이곳에서 예배, 공부, 숙식을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 등은 30명(양성 18명, 음성 5명, 진행 중 7명)으로, 이들에 대한 검사는 모두 완료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외에도 교회와 흡스쿨링 시설 방문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들 중 지표환자인 광주 1479번은 대면예배가 금지됐던 지난 17일에도 교회를 찾아 성가대 연습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좌석 2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한 상태다. 이 교회 확진자 일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검

사(직원 22명·원생 115명)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74명을 정점으로 대부분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해 오던 광주에선 지난 20일 6명, 21일 2명, 22일 7명 등 모처럼 사흘 연속 소강세를 보였으나, 이번 교회발 대규모 감염 사태로 또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에선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발 대규모 감염을 시작으로, 3월 광주 남구 한 교회 관련 집단감염 사태에 이어 4-5월 동구의 한 사찰과 북구의 또 다른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 11-12월 종교시설인 BTJ상주열방센터, 정사교회, 올 1월 영암 관음사 관련 등 소강세의 길목마다 종교시설 관련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등 방역당국도 종교시설 관리

전담제를 시행하는 등 종교시설발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마저 포기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한 시민은 이날 광주 일보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다 싶으면 종교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강화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시민에게만, 자영업자에게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종교 시설 등 상습 감염군에 대한 집중 관리부터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반려동물 코로나 감염 첫 확인
정충리 "관리지침 마련해야"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의 확진 사실을 지난 21일 밝혀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후 일본과 홍콩, 브라질 등에서 주인을 통한 개와 고양이의 감염사례가 보고됐으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었다.

진주 국제기도원에서는 지난 11일 이곳을 다녀간 방문자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당시 진주 국제기도원에 머물던 한 모녀가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두 마리 등 총 세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 중 한 마리다.

고양이를 키우던 모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해당 고양이가 이 모녀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1111, 북광명점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 (마해동)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안대교 516 (수현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이원대교 603 (남광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45-10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대로 520 (수현동)

정부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4M EX (배기량:1950, 공차중량:1900, 자동차년:13, 2도 신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M AMG line (배기량:1950, 공차중량:1900, 자동차년:13, 2도 신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 공차중량:1920, 자동차년:10, 2도 신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 공차중량:1920, 자동차년:10, 2도 신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연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가 차이를 보입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